

불쌍히 여기옵소서 Be merciful to me

누가복음 Luke 18:9-14 절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And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peopl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viewed others with contempt:**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12. 나는 이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s of all that I get.**'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some distance away,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서 한 과부가 찾아와 그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불어 달라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 하기에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신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가 응답 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쉬지 않고 간구하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 절).** **6 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게 하기에 응답해 주거늘 **7 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8 절에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자의 기도를 한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마가복음 11:17 절)이라고 하신 성전 앞에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스스로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합니다(**9 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기 자랑을 시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비교를 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하며 십일조를 드린다고 합니다(**12 절**). **창세기 4 장 8 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분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반항하며 대들었다가(**9 절** “내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10 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3 절에서 세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마가복음 11:17 절)인 성전에서도 앞쪽으로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기의 죄를 가슴으로 아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14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하며 자기를 낮추어 겸손했고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의 죄를 용서 받아 사도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죄를 용서 받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 장 8 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청결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즉 교제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13 절 “불쌍히 여기소서”**)

**1 시편 103:13** 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2** 로마서 **9:15** 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3** 누가복음 **7:13** 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둘째,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는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13 절 “가슴을 치며”)**

**1 요한 1 서 1:9** 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2 야고보서 1:15** 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날느니라”

**3 로마서 3:23** 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셋째, 죄를 용서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14 절 “의롭다 하심을 받고”**)

**1 에베소서 4:32** 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 이사야 43:25** 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8:12 절)

**3 요한 1 서 3:8** 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려 하심이니라”